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역발전 견인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음 2월 17일) 제347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LS그룹 투자 행렬… 전북경제 버팀목

LS전선 자회사 한국미래소재
전북자치도·군산시와 협약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신설
LS그룹, 지난해부터 협약 4건
투자금 2조2932억으로 늘어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LS전선 자회사 한국미래소재 이차전지 생산공장 신설 투자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 이상호 한국미래소재㈜ 대표, 강임준 군산시장, 박종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장등 참석자들이 올해 안에 360억을 투자하고 47명을 직접 고용해 이차전지용 동박 소재 및 재생 구리 등을 생산하는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 기업 유치 활동으로 대기업인 LS그룹의 도내 투자가 이어지면서 전북경제의 버팀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전북자치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박종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장, 이상호 한국미래소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안에 360억을 투자하고 47명을 직접 고용해 이차전지용 동박 소재 및 재생 구리 등을 생산하는 공장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LS그룹은 지난 2023년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등 그룹사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5공구)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전구체 및 황산니켈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건, 올해 1월 LS엠트론이 완주테크노밸리2산단에 궤도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 1건 등 모두 3건에 투자금액 약 2조 2,5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한국미래소재㈜는 연간 6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글로벌 케이블 시장의 리딩기업인 LS전선의 자회사로 LS전선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동박용 구리 신소재 '큐플레이크' 및 재생구리 소재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동박은 이차전지 음극재의 전극 소재로 사용되는 구리판으로 배터리 충·방전 시 전자를 전달하거나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이차전지 제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이다.

한국미래소재㈜는 전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속화로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동박제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 주요 동박업체들과 인접하고 이차전지 관련 대규모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전북자치도의 투자환경을 높게 평가해 군산공장 신규투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미래소재㈜ 이상호 대표는 "군산 공장의 건설로 고품질의 동박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LS에코에너지, LS머트리얼즈 등 관계사들과 희토류 영구자석, EV용 알루미늄 부품 등 친환경 소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에 투자를 결정해주신 한국미래소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의 생산으로 군산이 이차전지 밸류 체인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군산시는 투자기업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산단 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허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LS그룹이 지속적으로 전북에 투자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그룹사인 한국미래소재㈜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해 전북자치도와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해에 약 8조 6,000억원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으며,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되면서 미래 이차전지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군산=김판곤 기자

미주한인상의 총연합회 세계한인비즈니스 지원

연합회 회장단, 자치도 방문
김 지사 예방 참여의사 표명
경제 교류 지속 확대 기대

25일 이경철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적극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회장 이경철) 회장단은 올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앞두고 25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해 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한인 기업의 권익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로, 미국 전역의 유통망을 보유한 유통업체들이 다수 구성돼 있어, 전북 생산품의 대미 수출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2023년 미국에서 개최되었던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 참여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미국지역 한인비즈니스 CEO의 폭넓은 참여를 위한 업무협의 및 2025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K Global Expo 참석 요청 등을 위한 방문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새롭게 각인될수 있도록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회장과 임원진들의 방문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든든한 지원군 확보에 힘입어,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겠다."고 전북 1호 세일즈맨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또한,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에 개최되는 K Global Expo도 한인경제인들에 협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대회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경철 연합회장은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미주 연합회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겠다" 고 화답했다.

한편,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4,000여명의 경제인이 참가할 예정으로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재외동포청이 긴밀히 협력해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5월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전북자치도,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강력 징수 예고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올 처음 감치 신청 추진
생계형 체납자는 법 테두리 내에서 탄력적 징수키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압류를 진행하고, 가택수색 및 감치 신청 등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 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지속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치신청은 고액 상습체납자 및 악의적 기피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로 지방세 분야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 상황 발생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 이후에는 더욱 더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체납징수 활동 부분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